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박소*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6. 8. 7(일) ~ 8. 27(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Langara College은 Langara-49th 역에서 5분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 학교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등교할 때 스카이트레인과 버스 둘 중 어느 것을 이용하든 편하게 등교할 수 있었다. 학교의 규모는 우리 학교보다 더 작아 보였다. 학교 시설에 대한 설명은 각 반 선생님들이 수업 첫 날 지도를 준 후 학교를 같이 돌아다니면서 알려주었다.</p> <p>학교에 있는 시설 대부분을 이용할 수 있으나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할 수는 없었다. 방학 중이어서 학생이 거의 없었으나 도서관이나 카페테리아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나 다른 방학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 등을 볼 수 있었다. 교실은 깨끗하고 좋았으나 책상이 일체형이고 좁아서 조금 불편하였다.</p>
수업	<p>첫 날 듣기 테스트를 통하여 Lv1에서 Lv5까지 반을 나누었다. 듣기 테스트는 토익보다 더 쉽고 속도가 느려 따로 공부해야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다. 한 반은 주로 18명 정도이며 전부 아시아계 학생들 이었다. 우리 반의 경우는 일본인 8명 한국인 8명 타이완인 1명 중국인 1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p> <p>수업은 주로 짝을 이루어 서로 대화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Speaking과 Listening 실력을 늘릴 수 있었다. 교재는 학교에서 첫 날 나누어주는 바인더를 이용하였으며 수업 첫 날 얇은 노트를 나누어 주어 그 곳에 필기를 할 수 있었다. 과제는 거의 없었으며, 쉬운 내용이어서 부담이 되지는 않았다. 수업 준비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과제는 필수로 해 가야 하였다.</p> <p>오전 수업은 오전 9시부터 12시 까지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가진 후 오후 수업을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하였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오후수업까지 하고 나머지 날은 대체로 학교에서 단체로 이동하여 museum of Vancouver나 Aquarium, Kayaking과 같은 곳을 방문하여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수업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야외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p>

Activity	<p>벤쿠버 투어, 카약, 아쿠아리움, 박물관, 휘슬러 트립 등의 활동을 하였다.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은 오전 수업을 통하여 배우거나 전날 공지를 받았다. 주로 오후 수업 시간에 스쿨버스를 타고 활동을 가는데 스쿨버스로 다시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경우도 있지만 자유롭게 활동을 즐기고 알아서 집까지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선생님들이 일정 시간까지 오면 학교까지 같이 버스를 타고 가 주었다.</p> <p>카약의 경우 물이 될 수도 있으므로 수건과 여분의 옷을 챙겨오라는 공지가 있었으나 카약을 타는 동안 그 정도로 물이 튀지는 않았으나 담당 선생님이 물총을 챙겨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 젖은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서로 물을 튀기면서 놀지 않은 경우 몇 방울 정도밖에 젖지 않을 것이다.</p> <p>벤쿠버 투어는 하루 종일 진행되었는데 한 조당 가이드 한 분과 학생 6명으로 구성되어 벤쿠버의 유명 관광지들을 방문하여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관광지들이 거의 붙어있어 걸어서 이동하기 때문에 편한 옷과 운동화가 필수적이다. 활동이 끝난 후 자유롭게 집에 돌아가도 되었다. 이 활동에서 찍은 사진들은 벤쿠버 투어에 관한 발표에 이용되었다.</p> <p>아쿠아리움과 박물관에 경우 실내에서 관람하기 때문에 필요한 준비물이 없었으나 이 활동에서 과제가 주어지므로 이 과제를 해결하고 자유롭게 관람하다가 알아서 집으로 돌아가면 되었다.</p> <p>휘슬러 트립의 경우 하루 종일 진행되었는데 아침 7시 정도에 모여 저녁 8시 정도에 학교로 돌아왔다. 휘슬러는 매우 높은 산이기 때문에 추울 수 있으므로 따뜻한 옷을 준비하라고 경고 받았지만 실제로 올라가 본 결과 바람이 불지 않고 해와 가까워 햇빛이 쨍쨍하여 더위를 느꼈다. 산 정상에서는 반팔과 얇은 트레이닝 바지를 입어도 괜찮았으나 혹시를 대비해 들고 다니기 편한 겉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휘슬러에서는 대부분 곤돌라를 타고 이동하나 곤돌라를 갈아타기 위해 15분 정도 걸어야 하므로 편한 신발이 필요하였다. 또한 산 정상은 해와 가까워 썬크림이 필수적이다. 곤돌라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사방이 막혀있어 여러 명이 한꺼번에 탈 수 있는 곤돌라와 다른 하나는 스키장에 있는 것과 같이 그네 형태로 4사람이 함께 타는 곤돌라가 있다. 그네 형태의 곤돌라는 사방이 막혀있지 않아 썬그라스나 핸드폰 모자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p> <p>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활동은 입장료와 이용료 등 추가 요금이 없으나 관광품이나 간식 음료를 사고 싶은 경우 돈을 준비해 가 살 수 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대체적으로 햇빛이 쨍쨍하여 더위를 느끼나 습하지 않아 땀이 나거나 끈적거리지 않았다. 햇빛이 쨍쨍하기 때문에 선크림을 잘 바르고 다녀야 하며 선글라스도 쓰고 다녀야 하였다.</p> <p>비는 거의 오지 않았으나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면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겉옷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아침에만 잠깐 흐렸다가 오후에는 다시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두꺼운 옷을 입을 필요는 그다지 없었다.</p>
안전	<p>Langara에서 동영상 통하여 안전 문제에 대해 교육받았지만 위험한 상황에 직면한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China Town 주변에 마약 치료 센터가 있어 그 곳에서 혼자 다닐 경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친구들과 함께라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근처에 가지 말라고 경고 받았다. Down Town에서는 많은 노숙자들이 구걸하고 있으나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다.</p>
숙소	<p>홈스테이는 거의 다 학교 근처로 배정받았는데 간혹 Vancouver가 아닌 Burnaby나 Richmond에 배정받은 학생도 있었다. 한 집에 홈스테이 학생을 두 명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며 나의 경우 일본인 홈스테이 학생과 한 집에서 생활하였다. 홈스테이 집의 시설은 대체적으로 양호하였으나 욕실의 샤워기가 고정되어 있어 조금 불편함을 느꼈다. 샤워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늦지 않은 시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p> <p>집 안에서는 대체로 신발을 신고 생활하였으며 저녁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집에 돌아온 후 원하는 대로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식사는 대체적으로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덜어먹고 식사 후 싱크대에 접시만 넣어두면 되었다. 빨래는 원하는 때에 지하로 내려가서 하면 되었으나 세탁기가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하기를 원하였다. 빨래 후 건조기로 바로 말리기 때문에 다음 날에 바로 옷을 입을 수 있었다.</p> <p>홈스테이 집의 식구들은 11시 정도가 되면 모두 잠자리에 들었으므로 그 시간 이후로는 조용히 해 주는 것이 좋다. 절약하는 것을 좋아하여 음식을 낭비하거나 어둡지 않은 데 불을 키거나 불을 끄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을 싫어하였으므로 주의하여야 하였다..</p>

<p>식사</p>	<p>학교식당() 홈스테이 (V) 외부식당 (V) 기타()</p> <p>점심은 항상 홈스테이 집의 엄마가 싸서 식탁위에 올려두었는데 대체적으로 전날 저녁에 만들어 둔 음식을 챙겨주었다. 또한 원할 경우 집에 있는 과일을 추가로 챙겨가도 괜찮았다. 학교 식당에 많은 테이블과 전자레인지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그 곳에서 점심을 데워 먹었다. 학교 식당에는 도넛이나 샌드위치를 팔기 때문에 원할 경우 사 먹어도 되었다.</p> <p>아침과 저녁은 주방에 있는 것 중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챙겨먹도록 하였다. 아침은 주로 토스트나 시리얼 전날 저녁에 만들어 둔 것을 먹었으며 저녁에는 홈스테이 집의 엄마가 만든 음식이나 토스트나 가끔 배달 시킨 음식도 먹었으며 외부 식당에서 먹고 오기도 하였다.</p> <p>아침은 홈스테이 집 가족들이 일찍 나갔기 때문에 같이 홈스테이 하는 일본인 친구와 함께 먹었으며 저녁은 주로 일본인 친구와 홈스테이 집의 엄마와 함께 먹었지만 따로 먹고 싶을 경우 혼자 먹어도 되었다.. 음식은 전체적으로 간이 세지 않았고 다양한 음식을 체험해 볼 수 있었다.</p>
<p>교통</p>	<p>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은 첫 날 Langara에서 교육을 해주었다.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학생은 버스를 타고 통학할 수 있었고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학생은 스카이트레인을 타고 통학할 수 있었다. 첫 날 홈스테이 집의 식구들이 직접 버스를 타고 가면서 어느 정거장에서 내리고 환승해야 하는지 알려주었다.</p> <p>학교에서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나누어 주어 교통비가 들지 않았다. 하지만 일정한 구역을 벗어날 경우 추가로 요금을 내지 않고 탔다가 적발 될 경우 막대한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저녁 6시 30분 이후나 주말에는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버스 같은 경우는 구역이 없어 추가 요금이 없고 아침 6시 정도부터 저녁 11시 정도 까지 운행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개인부담금(항공료 외 기타)	1,711,200	출국 전 사전 납부
면세점	약 86,000	원서, 주류
입장료	약 86,000	UBC Botanical Garden, Museum of Anthropology, Art Gallery, Capilano Suspension Bridge
옷	약 35,000	따뜻한 옷
음식	약 35,000	저녁, 간식, 음료
기념품	약 78,000	메이플 쿠키, 시럽, 초콜릿, 토템, 드림캡처, ...
합계	약 32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날씨가 흐릴 경우 기온이 16도 정도 까지 떨어지므로 긴 바지나 긴 팔을 하나 씩 정도와 겹옷을 챙겨 가면 정말 유용할 것 같다. 외부 활동이나 놀러갈 때 많이 걸어야 하므로 운동화를 필수적으로 챙겨야 한다.

핸드폰의 경우 와이파이를 홈스테이 집과 학교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가까운 커피숍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의 메신저 어플을 홈스테이 가족에서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후 사용하면 문자나 전화를 어플을 통하여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공중전화도 많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통화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로밍을 해 갈 필요성은 없고 현지 유심을 중 데이터가 적게 포함되어 가격이 낮은 것을 사거나 조금 불편해도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캐나다는 동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동전 지갑을 하나 챙겨서 가면 편리하며 대부분의 관광지에서 국제 학생증을 제시하면 입장료를 할인하여 주므로 국제 학생증도 가져가면 유용하다. 음식이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컵라면을 챙겨가서 먹으면 좋다. 공부하기 위하여 책을 챙겨갔었으나 거의 보지 않았으므로 따로 책이나 노트를 챙겨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정 챙겨가고 싶으면 얇은 것으로 한 권 정도만 챙겨가는 것이 좋다. 필통을 챙겨가도 거의 필요가 없으므로 볼펜이나 샤프 한 자루 정도만 준비해도 된다.

2주 정도면 모든 관광지를 돌아다니기에 충분한 시간이므로 여유를 가지고 돌아다녀도 괜찮다. 관광품의 경우 다운타운에 있는 게스타운에서 사는 것이 좋으나 각 가게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므로 비교해 보고 사는 것이 좋다. 하지만 시럽이나 훈제 연어 쿠키와 같은 경우는 Lundern Drug에서 저렴하게 파므로 여유를 가지고 비교한 후 사는 것을 추천한다.

홈스테이 집의 선물을 주는 것도 좋는데 한국 화장품을 사 가지고 가 선물로 주었더니 정말 좋아하셨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우리나라의 경우 원어민 영어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한 영어로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싶어서 지원하였다. 3주 동안 Vancouver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단어에 대한 부족함이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면서 토익을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단어들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동사들은 조금 더 기초적이면서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런 단어에 소홀하였기 때문에 내 의견을 전달하거나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어려움을 느꼈었다.

처음 외국에 나가서 홈스테이 생활을 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홈스테이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그 나라의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었으며 생활에 어려움이 나 궁금증이 있었을 때 홈스테이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홈스테이 가족들 덕분에 마트에 가서 우리나라와는 다른 과일과 야채들을 구경해 볼 수 있었으며 옆집 생일 파티에 가서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생일 파티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었다. 만일 홈스테이 생활을 해 보지 않았다면 경험해 보지 못할 활동들이었기에 홈스테이를 한 것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

다른 나라의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하며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 힘들다. 하지만 이 기회를 통하여 많은 일본인, 중국인 그리고 타이완인과 친구가 될 수 있었다. 3주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서로의 문화와 생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서로의 언어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인연을 계속 이어갈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학교에서 지원해주어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Langara College에서 외부 활동을 지원해주어 추가 비용 없이 안전하게 좋은 장소들을 견학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 프로그램을 경험한 3주 동안 누구보다 값진 3주를 보낼 수 있었다. 3주 동안 Vancouver에서 생활한 동안 알게 된 나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시켜 국제교류지원처에서 운영하는 다른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7. 사진보고서 (6장 이상으로 사진 크기에 맞추어 표 변형 가능)

	
<p>Langara College</p>	<p>Queen Elizabeth Park</p>
	
<p>Capilano suspension bridge</p>	<p>Kayaking</p>
	
<p>Birthday party with homestay family</p>	<p>gondola in whistler</p>



Taby`s class



with our friends in airport